

조선어에서 가정에 대한 이해와 표현

교수 박사 양 하 석

1. 서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말은 문법구조도 짚었습니다. 문법구조가 짚었다는것은 언어가 그만큼 발전되었다는것을 말합니다.》(《김정일전집》 제3권 130페이지)

조선어는 문법구조가 치밀하게 발달되어있는 우수한 언어이다. 조선어에서 기본적인 문법수단은 토이다. 토는 조선어고유의 형태론적수단으로서 체언과 용언에 붙어서 대상성과 서술성을 나타낼뿐아니라 바꿈토를 리용하여 문법적인 성격을 전환시킬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있다.

토는 말뿌리나 말줄기뒤에 붙어서 자기의 문법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토는 말뿌리나 말줄기뒤에 하나만 붙을수도 있고 여러개가 붙을수도 있다.

조선어토는 하나가 다의적인 기능을 수행할수도 있다.

레컨대 이음토 《면》은 접속의 의미기능을 가지고있을뿐아니라 가정의 의미기능도 수행할수 있다.

가정을 다종다양하게 나타낼수 있는 문법적형태체계와 어휘적수단들을 풍부하게 갖추고있으며 가정의 의미를 깊이있고 섬세하게 나타낼수 있는것은 의미표현의 측면에서 조선어가 가지고있는 또 하나의 우수성으로 된다.

조선어에서 가정은 기본적으로 《면, 다면, 라면, 더라도, ...》 등을 비롯한 이음토들에 의하여 매우 풍부하고 다양하게 표현되며 이밖에 《만약, 만일, 혹시》를 비롯한 부사들에 의하여서도 표현된다.

이 글에서는 가정에 대한 이해를 주고 가정의 다양한 표현류형에 대하여 서술한다.

1.1. 문제의 제기

조선어에서 가정이 범범주로 되어있지 않기때문에 《가정법》이라고 할수는 없다.

가정이 범범주로 되려면 가정의 의미기능과 함께 가정의 문법적수단이 있어야 한다.

조선어에서는 이음토 《면, 다면, 라면》과 같이 접속의 기능을 가진 토들이 가정을 표현한다. 가정의 형태론적수단은 없으나 가정의 의미는 이음토 《면》을 포함하여 여러 토들에 의하여 매우 다양하고 깊이있게 표현되기때문에 그 의미기능에 대하여 《가정》이나 《가정의 표현》 또는 《가정표현》이라고 말할수도 있다.

조선어문법에서 가정은 체계성을 띠고 표현된다. 가정법의 범주를 설정할수 있는 형태론적수단이 없다고 하여 가정이 체계성을 띠고 표현되는데 대하여 외면하거나 스쳐지날수는 없다.

그러므로 언어생활에서 표현되는 가정의 문법적인 본질은 무엇이고 가정을 어떻게 이해할것인가 하는것과 가정의 표현류형을 어떻게 갈라야 하는가 하는것은 조선어문법에서 응당 고려해보아야 할 문제이다.

1.2. 가정에 대한 선행연구

일반언어학에서는 가정을 범범주의 틀거리안에서 연구하여왔다.

범범주는 이야기하는 사람이 설정한 행동 또는 상태와 현실과의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문법적범주이다. 범범주는 자기의 고유한 형태체계를 가지면서 그안에서 직설법, 목적법, 가정법 등을 설정하고 가정법의 범위에서 가정의 표현을 논의할수 있다.

가정을 표현하는 문법적인 형태수단의 체계가 안받침된 언어에서는 가정법이라고 표현하는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조선어에서는 범범주의 틀거리에 가정법이 없으므로 따로 가정법을 설정하지 않고 이음토 《면》이 포함되어있는 《면, 다면, 라면, 자면, …》 등 이음토들과 기타 《만일, 만약, 혹시, …》 등과 같은 부사들과 일부 보조적단어들에 국한하여 가정에 대하여 언급하였고 단어나 토의 의미기능을 서술하는 경우에 가정의 의미가 표현된다는데 대하여 개별적으로 취급하여왔다. 그러다보니 가정과 그 표현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정립될수 없었다.

《조선어문법(1)》(과학원출판사, 1960.)에서 범범주는 이야기하는 사람이 설정하는 행동(상태)과 현실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문법적범주라고 규정하고 그안에서 직설법과 목적법 및 가능법을 구분하였다. 이 책에서 가정은 법으로 제정되어있지 않았다.

《조선어리론문법(형태론)》(과학, 백과사전출판사, 1985.)에서도 문법적수단들에서 형태론적으로는 양태성을 나타내지만 체계가 구성되어있지 않은것도 적지 않다고 하면서 《읽으면, 읽어야》와 같은 이음형도 가정이나 조건을 나타내므로 양태성을 띠기는 하지만 문법적범주로는 되지 못한다고 하였다.

《현대국어문법론》(과학백과사전출판사, 주체104(2015).) 제3편 형태론의 제3장에서 서술토의 항목을 설정하고 그안에서 조건의 접속형에 《면》과 《거든》이 있고 가정의 접속형에 《더라도》, 《근지라도》, 《근지언정》이 있는데 대하여 레문을 들어 논술하였다.

이 책들에서는 한결같이 조선어 범범주의 틀거리안에서 가정법을 설정할수 없다는데 대하여 제기하였다.

문법적인 범주를 설정하자면 범주의 의미관계와 아울러 범주를 실현하는 문법적인 형태수단의 체계가 갖추어져있어야 한다.

소론문 《조선어에서의 가정의 표현에 대한 논의》(《김일성종합대학 국제학술토론회 - 2018》)에서 가정에 대한 표상과 본질, 기타 수단과 표현방식에 대하여 초보적으로 논의하였다.

조선어에서는 가정법이 범주화되어있지는 않으나 가정의 의미와 가정의 표현은 사회언어생활에서 다종다양하게 실현된다.

아래의 시문장에서 《진격의 길에서 내 주저하며 순간이나마 생명의 귀중함을 생각한다》는것과 《나의 가슴을 겨누는 적의 탄알이 전우의 가슴을 뚫게 된다》는것을 가정하였다. 만일 그것이 현실로 되는 경우에는 《…용서치 마시라 조국이며 …절대로 용서치 마시라》고 절절히 웨치고있다.

그러나 용서치 마시라 조국이며
진격의 길에서 내 주저하며
순간이나마 생명의 귀중함을 생각한다면
하여 나의 가슴을 겨누는 적의 탄알이
전우의 가슴을 뚫게 된다면

절대로 용서치 마시라

(시 《용서하시라》중에서)

여기서 토 《나다면》에 의하여 가정이 표현되었다.

무엇을 아끼랴 그 무엇을 서슴으랴
그대 송엄하고 존엄높은 모습에
한줄기 빛이라도 더해드릴수 있다면
내 불붙는 석탄이 되어
어느 발전소의 화실에 날아들어도 좋아라
그대 은정 가없이 펼쳐진
저 푸른 이랑들을 더 푸르게 할수만 있다면
내 한줌 거름이 되어
어린 모 한포기를 살찌운들 무슨 한이 있으랴

(서정시 《어머니》중에서)

이 서정시에서는 토 《다면》에 의하여 가정이 표현되었다. 이것은 서정시를 포함한 운문에서 가정이 적절하게 리용되고있다는것을 알수 있다.

- 《...물어봐도 대답을 피하구... 이진 재미로 말하던 단계는 지나갔다는게야. 녀자들이란 호기심만일 때는 말하기를 좋아하지만 사랑에 가까와지면 누구도 모르게 감추고싶어하거든. 그리고 자기 혼자서 자기자신과 이야기한단 말이야. 이를테면 심장하고 말이지! 알겠어?》(단편소설 《폭풍우 지난 뒤에》중에서)
- 순간 나는 입을 열었던것을 후회했다. 차라리 그냥 걸다가 《잘 가시오. 고맙소.》하고 헤어졌더라면 좋았을것이다. 그랬더라면 래일 다시 만날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을것이며 기쁨은 기쁨대로 있었을것이다.(단편소설 《폭풍우 지난 뒤에》중에서)

이 단편소설에서는 토 《면》과 《더라면》에 의하여 가정이 표현되었다. 이것은 단편소설을 포함한 산문에서도 가정이 표현되고있음을 알수 있다.

이처럼 조선어에 풍부하게 갖추어져있는 가정의 표현과 그 류형에 대한 종합적인 서술은 아직까지 제기되지 못한 상태에 있다.

그러므로 조선어의 민족적특성에 맞게 가정표현의 체계를 밝혀내는것이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세계의 모든 언어들은 호상 교류와 접촉속에 있다. 조선어와 영어, 영어와 조선어사이에 대응관계를 설정하거나 번역과 관계되는 문장을 대응시킬 때에는 반드시 가정의 의미가 표현된 부분들을 맞세우게 된다.

- 만일 동무가 나를 도와주겠다면 매우 고맙겠습니다.(조선어)
- If you would help me, I shall be very much obliged. (영어)

우의 실례문들에서 조선어의 《만일... 겠다면》이 가정을 나타내는 부분이므로 여기에 영어의 가정법을 나타내는 《If...would》를 대응시켜 번역하여야 한다.

번역실천에서 제기되는 이러한 문제는 필수적으로 조선어의 가정표현의 의미기능과 영어의 가정법의 의미기능을 련관시켜보는것이 중요하다는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가정표현의 측면에서 제기되는 언어실천상의 문제라고 할수 있다.

- If it be true, you are to blame.(영어)

○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책임은 동무에게 있는거예요.(조선어)

영어에서 표현되는 가정법을 조선어에서는 부사 《만일》과 이음토 《라면》으로 이루어지는 가정표현으로 대응시켜야 한다. 이것 역시 번역실천에서 제기되는 언어실천상의 문제라고 할수 있다.

이 모든것은 조선어에 있는 이음토 《면》을 비롯한 여러 토들과 부사 《만일》을 비롯한 단어들이 가지고있는 가정표현의 기능을 밝힘으로써 조선어에서 가정의 표현류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야 한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2. 본 론

2.1. 가정에 대한 이해

가정은 사상감정을 풍만하게 나타낼수 있는 하나의 유력한 언어적수법으로 된다.

가정은 사실이 아닌것을 사실처럼 가상하거나 아직 사실이 되지 못한것을 이미 사실로 된것처럼 인정하는것을 말한다.

가정의 뜻은 가정의 표현방법에 의하여 실현된다.

조선어에서 가정은 일정한 문형에 의하여 그것을 표현하는 어휘-문법적인 표현체계를 이룬다.

가정은 명사 《가정》이나 동사 《가정하다》에 의하여 표현되는것이 아니라 《...다면 ...겠다.》, 《...면 ...ㄴ것이다.》, 《...면 ...ㄴ다.》, 《만일 ...다면 ...ㄴ것이다.》와 같은 문형들에 의하여 표현된다.

* 문형은 쉽게 말하여 문장의 본보기적인 틀거리이다. 문형에 대한 이해에서는 그것을 보다 일반화된 문장틀로 보는 견해도 있고 보다 구체적인 문장틀로 보는 견해도 있다. 여기서 문형을 보다 구체적인 문장틀로 본다면 《...다면 ...이다.》, 《만약 ...면 ...ㄴ것이다.》 등도 서로 다른 문형으로 될수 있다고 보아진다.

가정을 표현하는 문형들에서 명백한것은 단어 《만일(에)》, 《만약(에)》, 《혹시(나)》와 같은 부사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는것이다.

단어 《만일(에)》, 《만약(에)》, 《혹시(나)》와 같은 부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뒤에 오는 《면, 다면, 라면》 등과 함께 일종의 문형을 이루고 가정이 나타나는 하나의 표현구가 성립된다는것을 알수 있다.

그러나 단어 《만일(에)》, 《만약(에)》, 《혹시(나)》와 같은 부사가 없는 경우에는 가정의 표현구가 시작된다는것을 미리 알수 없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가정의 표현구가 짝막하게 줄어들게 된다.

이음토 《면, (ㄴ)다면》 등은 가정을 표현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 문법적수단이다.

이런 의미에서 조선어에서의 가정은 기본적으로 일련의 이음토들이 가지고있는 문법적인 성격에 의하여 규제된다고 할수 있다.

○ 우리가 지금껏 경험을 쌓았으니 이제부터 그 경험을 계속 살려나간다면 더 잘살수 있게 될것이다.

말하는 순간에는 경험을 살려나가는것이 현실화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 그 경험을 현실에서 계속 살려나가게 된다고 가정하면 그런 생활적인 바탕에서는 틀림없이 《더 잘

살수 있게 될것이다》라는것을 이 가정문을 통하여 예상할수 있다. 이 문장에서 《우리가 ... 살려나간다면》은 가상적인 조건을 표시한 부분이고 《더 잘살수 있게 될것이다.》는 결과를 표시한 부분이다.

- 래일 눈비가 오더라도 공사는 중단할수 없소. 그러니 눈비가 와도 공사를 중단없이 밀고나갈수 있는 대책을 미리 세워야 하오.

이음토 《더라도》에 의하여 양보가 표현되고 이음의 문법적의미와 함께 《래일 눈비가 오》는 경우를 가정하는 가상적인 조건의 의미가 표현되었다.

- 혹시 래일 바람이 불면 꽃가루채집을 미루어야 할것 같습니다.

부사 《혹시》는 《래일 바람이 불》어칠수 있는 가상적인 조건을 어휘적으로 표현하는 단어이고 이음토 《면》은 이러한 가정을 설정하는 문법적수단이다.

바람에 꽃가루가 날리면 꽃가루채집에 지장을 줄수 있는 우려가 있다. 이런 가상적인 조건은 사실로 될수도 있고 되지 않을수도 있다. 그것이 현실화된다면 결과부분에 있는것이 사실로 될것이지만 가상적조건이 실현되지 않는다면 결과부분은 달라지게 되어 《꽃가루채집을 미루》지 않고 계획대로 하게 될것이다.

단어 《혹시》와 같이 부사는 흔히 문장의 앞에 놓이여 가정문이 시작됨을 나타내므로 그 문장의 종류를 특징짓는데서 일정한 의의가 있으나 가정이나 가상적인 조건을 규제하는데서 필수적으로 있어야 할 요소는 아니다. 그것은 이 부사가 없이도 능히 가정이 성립될수 있기때문이다.

- 이 실험은 고도의 정결성과 정밀성을 요구한다. 즉 무균화, 무진화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런 기초조건이 보장되지 않으면 실험의 성과를 담보할수 없다.

실례문에서는 《이런 기초조건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를 가정하였다. 여기서 이런 기초조건이 보장되는 경우가 부정되고 그 부정되는 경우가 가상적으로 제기되었다. 이 가상적인 조건에 대한 부정이 성립된다면 결과로서 실험의 성과가 담보될수는 없는것이다.

이상의 실례문들에서 보듯이 부사 《혹시》 등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되지만 이음토 《더라도》, 《면》 등은 가정표현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로 된다고 할수 있다. 이와 아울러 가정의 부사와 이음토들이 《만일 ...면 ...것이다.》와 같은 문형을 이루고 그것에 의하여 가정을 표현하는것이 가장 보편적인 가정표현의 방법이라고 할수 있다.

이음토의 기본기능은 그 토가 붙은 단어를 다른 단어에 이어주는 접속의 기능이다. 토의 의미는 추상적이므로 그것이 붙은 단어의 어휘적의미와 결부시켜야만 그 의미기능을 옹게 파악할수 있다.

- 마감시험까지 잘 치면 이번 학기말시험에서는 모두가 우등, 최우등을 쟁취할수 있다.
- 마감시험까지 잘 치게 되면 이번 학기말시험에서는 모두가 우등, 최우등을 쟁취할수 있다.
- 마감시험까지 잘 치게 된다면 이번 학기말시험에서는 모두가 우등, 최우등을 쟁취할수 있다.

실례문들에서 보면 《치면, 치게 되면, 치게 된다면》에서 보조동사 《되다》가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가 있고 토 《나》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있는데 다같이 가정을 표현하는 같은 기능을 수행하고있다고 말할수 있다. 즉 마감시험을 치는 일을 능동형이나 피동형으로 표현하더라도 다같이 그것이 성과적으로 진행된다면 학기말시험에서 결정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는것으로 된다는것이 이 문장의 내용으로 된다.

가정의 표현은 언어의 기본단위인 단어에 의해서가 아니라 언어행위의 기본단위인 문장에 의하여 나타난다. 즉 일정한 문형에 의하여 규제되는 문장들을 통하여 가정이 표현된다.

문장은 서술형과 억양에 의하여 완결된 사상감정을 표현한다. 즉 문장은 생활을 통하여 축적된 사상감정과 상식 및 지식과 소식 등을 나타낸다.

어떤 사실, 사건 등을 있는 그대로 표현한 문장은 직설법, 말하는 사람이 자기가 목격한것을 옮겨 말한 문장은 목격법으로 된다.

- 우리 인민들은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진격로를 열어나가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고있다.(직설법)
- 일종의 질투심 비슷한것을 느끼며 손레연은 말을 이었다. 《지뢰원이지 뭐야? 앞에서 다가서자면 언니의 쏘는것같은 눈길때문에 10m안엔 들어설수 없구 뒤에서 접어들자니 언니뒤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경쟁자들때문에 얼씬도 못하겠지... 참 들었어요? 언니에게 눈독을 들인 어떤 총각이 밤낮 우리 우편국앞을 맴돌다가 우체통이 벌떡 일어서며 커다란 발통으로 뺨을 후려치는 바람에 줄행랑을 뛴대요!》(목격법)(단편소설 《이 나라 너인들》중에서)

직설법과 목격법의 공통성은 문장에 담겨진 이야기내용을 말하는 사람이 자기가 직접 체험하였거나 보고 듣고 느끼어 그것을 사실이나 진실 및 진리로 받아들이었다는데 있으며 또 문장에 담겨진 내용에 대하여 말하는 사람이 그것을 진리라고 믿는다는데 있다.

- 《시꺼먼 밤에 총각이 다짜고짜로 <난 동무가 마음에 드오!>하니 얼마나 당황했겠어? 피할 생각밖엔 없었을거야. 그런데 어리다고 해도 들은척 안해, 사회생활을 못해봤다는데도 물러서지 않아. 그러니 숨어버릴수 있는데야 <약속한 사람>밖에 있어? 내가 처녀래도 그렇게밖엔 대답 못했을것 같애! 동무같은 바보가 암만 마음에 들었대두 말이야.》(추측)(단편소설 《폭풍우 지난 뒤에》중에서)
- 그리고 이 밤 나는 그를 위하여서라도 온 건설장이 깜짝 놀라게 하는 위훈을 세우고싶었다. 그를 기쁘게 해줄수 있는 일이라면 그 무엇이든 하고싶었고 그가 바란다면 당장이라도 토공을 그만두고 연공이나 조립공이나 다른것으로 되고싶었다. 위훈을 세우기 위해서라면, 사랑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일이라도 하고싶었다.(가정)(단편소설 《폭풍우 지난 뒤에》중에서)

추측과 가정은 다같이 어떤 사실 그자체가 아니라 사실과 관련이 있는 사람의 생각 이라는데 의미기능적인 공통점이 있다.

가정에 의하여 표현되는 문장의 이야기내용은 그것이 이미 사실로 되었거나 앞으로 사실로 될수 있는것에 대한 가상과 예측 및 추측, 가정하여 설정하게 되는 조건과 결부된다. 그러므로 가정문에 의하여 표현된 이야기의 내용은 사실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앞으로 그것이 현실적인것으로 전환될수 있는가 전환될수 없는가 하는 밑뜻과 밀접히 결부된다.

- 《세멘트창고의 지붕이 날려난걸 보고도 교환대를 그냥 지켰어야 옳았을거라고 생각하오?》

《...》

아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본적이 없었다. 나였더라도 뛰어나갔을것이다. 만일 순희가 그때 그것을 보고도 그냥 앉아있었더라면 나는 그에 대해 심한 의혹을 느꼈을것이다. 그것은 처녀에게 심장이 없다는것을 말해주는것과 같기때

문이다.(단편소설 《폭풍우 지난 뒤에》중에서)

이 묘사는 세멘트창고의 지붕이 날려난것을 보고 뛰어나간 순희의 소행에 대하여 주인공 강현호가 거기에 자기를 세워보면서 자기라면 어떻게 행동하였을가 하는것을 가정하여보는 장면을 그린것이다.

이렇게 실제의 사실을 놓고 순희대신에 자기가 교환대를 지켜서있는 장면을 가상적인 조건으로 설정한것이 바로 가정의 표현으로 된다.

이와 같이 현실과 련관된 가상의 조건을 설정한다는데 직설법이나 목격법과 차이는 가정표현의 특징이 있다.

여기서 창고지붕이 날려난것, 교환대를 지키고있는 순희, 비가 새는 창고지붕을 막으려고 창고지붕으로 달려가는 처녀 — 이것들은 다 사실이다.

그러나 교환수대신에 자기를 그 자리에 세워보는 강현호, 세멘트창고에 비물이 쏟아지는것을 보고도 그냥 앉아있는 교환수처녀 — 이것들은 다 가정이다.

이런 급변하는 자연조건에서 강현호자신도 세멘트창고의 지붕위로 뛰어나갔을것이다. 만일 교환대에 앉아서 창고에 비물이 흘러들어가는 비상사고를 보고만 있을 순희라고 가정한다면 그 처녀에게는 심장이 없는것으로 될것이다.

이처럼 가정에 의하여 설정된 가상의 조건과 사실사이에는 긴밀한 련관이 있다.

바로 《면》을 비롯한 이런 부류의 이음토와 그것이 들어있는 가정문들은 가정을 짓고 그것으로 하여 설정된 가상의 조건을 사실과 결부시키며 주어진 가정밑에서 일어나게 될 일에 대하여 말하는 사람이 자기의 생각을 앞으로 밀고나갈수 있게 하는 역할을 맡아 표현하게 된다.

이처럼 의미론적인 측면에서 볼 때 조선어의 가정표현은 사실이나 사건에다가 가상의 조건을 덧붙여주는 의미접속의 기능을 이음토 《면》 등이 들어있는 문형에 의하여 표현하는 형태 — 문장론적인 수법으로 된다.

- 만일 어제밤 우리 직장이 맡은 구역에 폭풍우가 몰려들어왔더라면 우리 직장도 그것을 막느라고 전투를 벌렸을것이고 오늘아침 현장속보를 통하여 크게 소개되었을것이다.

실례문에서 폭풍우가 몰려들어왔던것은 말하는 순간보다 과거에 일어난 일로 된다. 과거에 큰물이 넘어들어왔다고 가정하면 그런 가상의 정황에서 그 피해를 막기 위한 전투가 벌어지게 되었을것이고 따라서 자기네 직장도 칭찬을 받게 될수 있었다는것을 예측할수 있게 된다.

가정표현을 통하여 지금 일어나는 사실에 대한 추측과 결론을 내릴수 있으며 미래에 대한 판단도 가능하게 된다.

- 뿌리가 살아있으면 반드시 움이 트고 가지가 뻗고 열매를 맺기마련이다.

실례문에서는 말하는 순간에 뿌리가 살아있다는것을 가정하였다. 그런 가정밑에서는 《반드시 움이 트고 가지가 뻗고 열매를 맺기마련》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뿌리가 살아있다》는것은 말하는 순간만이 아니라 말이 끝난 후에도 계속되는 현상에 대하여 말하는것이므로 미래적인것으로도 된다.

가정에 의하여 자연과 사회에서 법칙적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서도 말하는 순간에 사실로 되지 않은것이라면 가상의 조건을 걸어서 표현할수 있다.

- 여름이 오면 문수물놀이장에 꼭 한번 가서 하루를 즐기며 폭 쉬고싶다.

여름이 오는것은 계절의 리치이므로 필연적인것이다.

그러나 실례문에서 말하는 순간에 여름이 당장 현실로 펼쳐진것이 아니므로 얼마든지 가상적인 조건을 걸어볼수 있는것이다.

- 우리가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들고나간다면 그 무엇이든지 마음먹은대로 척척 만들어낼수 있소.

자력갱생의 정신을 높이 발휘하는것은 난관을 뚫고나가기 위한 근본방도의 하나이다.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들고나갈 때 뚫지 못할 난관이 없으며 못해낼 일이 없다. 그러므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하면 모든것을 자체로 해낼수 있다는것은 필연으로 된다. 말하는 사람이 세운 우와 같은 가상적인 조건에서는 《그 무엇이든지 마음먹은대로 척척 만들어낼수 있》다는 확신적인 결론을 당연히 끌어낼수 있는것이다.

물론 가정을 하는 모든것에서 확신에 넘치는 결과가 나오는것은 아니며 대화자가 확신에 넘쳐 말하였다고 하여 모든것이 다 진리로 떨어지는것은 아니다.

- 래일 우리가 목적지에 도착하면 반드시 그들을 만날수 있다.

래일 목적지에 도착하는것에는 술한 우연이 작용할수 있다. 술한 우연에 기초한 《확신적인 결론》은 대화자의 말과 같이 무조건 진리로 될수는 없다.

가정표현을 통하여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하여 가상적인 조건을 설정할수 있으며 그에 따라 어떤 미래적인것에 대하여 설계하거나 예견도 할수 있다.

- 그의 가슴속에는 그들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바친들 무엇이 아까우랴 하는 생각이 더욱 굳어지는것이였다.

가정표현을 통하여 과장을 할수도 있고 그것이 주어진 정황과 문맥에 맞는 경우 사람들에게 커다란 공감과 감명을 불러일으킬수 있다.

- 저 하늘의 별을 따올수만 있다면 이 귀여운 꽃봉오리들의 가슴에 하나씩 달아주고싶구나.

이 과장은 현실적으로 실현될수 없는것이지만 《...다면 ...달아주고싶구나.》라는 문형속의 가정적인 조건에서는 충분히 납득될수 있고 하늘의 별을 따다가 달아줄 정도로 곱고 귀여운 어린이들에게로 달려가는 마음이 그토록 뜨겁고 열렬하다는것을 과장이 들어있는 가정문을 통하여 표현하였다. 사람의 마음이나 정성, 지성은 측정할수 없을 정도로 거의 무한대한것이므로 가정의 세계에서는 충분히 그러한 과장이 성립될수 있다.

가정표현을 통하여 긍정과 부정을 반영하는 의미기능이 수행된다.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공장에 찾아오신 소식을 듣는다면 그도 얼마나 기뻐하랴!

실례문에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공장에 찾아오신 소식을 듣는다면 그도 몹시 기뻐할것이라는데 대하여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가정이 성립되였다.

- 우리가 이 모든 유리한 조건과 가능성을 옹계 리용만 한다면 무슨 일이든지 다 할수 있지요.

실례문에서는 《우리》가 이 모든 유리한 조건과 가능성을 리용만 하는데 대하여 이 가정에서 긍정으로 표현하였다.

- 군사복무만 아니였다더라면 나는 언제까지라도 그곳을 떠나지 않았을것이다.

이 작품의 주인공은 군사복무를 한 후에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초소로 가면서 《그곳》에 대한 애착의 마음을 표현하였다. 여기서 부정의 수법으로 가정을 표현하였다.

가정을 통하여 말하는 사람이 설정한 가상적조건에서 얻어지는 결론에 대하여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확인함을 표시할수 있다.

가정이 확고부동한 생활적바탕에 의거하는 경우에는 그 진리성이 완전무결하게 검증되는것이고 따라서 진리값이 검증된 결론을 가정문에서 확고히 표현할수 있는것이다.

- 전체 인민이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일떠선다면 못해낼 일이 없고 전민이 단결하여 싸워나간다면 뚫지 못할 난관이란 있을수 없는것이다.

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전체 인민의 거세찬 진군의 흐름은 그 무엇으로써도 가로막을수 없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조선인민은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였다. 자기 삶의 터전과 운명을 사수하려고 결사적으로 일떠선 인민들을 당할자 이 세상에 없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사회주의강국을 건설해나가고있는 조선의 현실이 이를 실증해주고있다. 조선혁명의 그 모든 승리와 성과에 토대하여 가정을 한 내용이 진리로 확증되었으므로 그러한 가상적인 조건에서 얻어지는 결론은 확고한 진리로 된다.

진리적조건 ⇒ 진리

[전체 인민이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일떠선다면] [못해낼 일이 없다.]

[전민이 단결하여 싸워나간다면] [뚫지 못할 난관이란 있을수 없다.]

- 교원이 교수준비에 모든 노력과 정성을 다 쏟아붓는다면 학생들이 지식을 습득하는데서는 뚜렷한 성과가 이루어지기마련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교육은 사랑이고 헌신이며 애국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교원이 학생들을 친혈육과 같이 아끼고 사랑하며 나라의 후대를 책임지려고 한몸을 다 바치며 김정일애국주의를 구현하여 지혜와 정열과 헌심을 다 기울이게 될 때 교수내용과 방법을 개선하며 학생들의 수준과 심리에 맞게 깨우쳐주는 교수와 교양에서 뚜렷한 성과가 이룩된다는것은 지금까지의 교육경험이 잘 보여주주고있다. 따라서 생활에서 실증된 경험과 진리를 바탕으로 하여 가정을 할 때 그 가정문의 뒤부분에서 대화자는 확고부동한 결론에 이르게 되는것이다. 즉 가정의 생활바탕에 진리성이 있으면 그에 토대한 결론은 진리값을 가지게 되는것이다.

- 폐기물과 독성물질들을 강과 바다에 마구 처넣거나 화학공장들에서 나오는 유해가스를 대기중에 망탕 퍼뜨린다면 인류의 생존조건과 생태환경은 커다란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폐기물과 독성물질, 유해가스는 사람의 생존에 매우 해독적인 후과를 주게 된다. 만일 폐기물과 독성물질, 유해가스가 계속 강과 바다와 대기속에 퍼진다면 그것이 사람의 생존에 미치게 되는 후과는 불피코 매우 위험한 지경에 이르게 될것은 불보듯 뻔한 노릇이라고 말할수 있는것이다. 이러한 독성물질을 마구 내버리는것이 지속된다고 가정하면 그것은 생태환경을 극도로 파괴하는 필연적인 후과를 낳기마련이다. 그러므로 상정된 가정조건에서는 확신적인 결론에 떨어지게 되는것이다.

2.2. 가정표현의 유형

조선어에서의 가정표현의 유형은 정연한 체계를 이루고있다.

가정표현의 유형은 문장에서 가정을 나타내는 부분이 어떤 시간을 나타내는가 하는

데 따라 여러 유형으로 갈라진다.

- 위대한 장군님께서 철수를 대학으로 불러주시고 높은 신임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지 않았더라면 그는 이처럼 큰 연구성과를 거두지 못했을 것이었다.

이 문장에서 가정은 과거시간토 《았》에 의하여 부정과거를 나타내었다.

- 일부 사람들은 가뜰이나 정세가 긴장한데 외국배를 붙잡았다가 외교분쟁이라도 일어난다면 얻는것보다 잃는것이 많을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외국배를 붙잡았다가》는 과거이지만 동사 《일어난다면》은 《ㄴ다면》에 의하여 현재시간을 나타내었다. 즉 가정의 앞부분에서는 과거를 표시하였지만 이 가정은 현재형으로 인정된다.

- 오늘 학과의 전체 학생들앞에서 발표한 동무의 논문에 대한 반영이 아주 좋습니다. 앞으로 우리 대학의 전체 학생들앞에서 논문을 발표하겠다면 우리가 발표회를 조직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발표할 의향이 있습니까?

실례문에서 가정하는 대목에 미래시간토가 붙어서 가정은 미래로 표시되었다.

이처럼 가정을 표현하는 이 3개의 레문들에서 과거, 현재, 미래가 표시되었다.

문장의 시간관계는 맺음술어에 표시된 시간으로 결정되지만 가정표현에서는 가정을 나타내는 부분의 시간상태가 어떠한가에 따라 과거, 현재, 미래가 결정된다.

결국 조선어에서 가정표현은 가정과거와 가정현재 그리고 가정미래로 갈라지게 된다.

2.2.1. 과거에 대한 가정표현

문법적으로 볼 때 과거는 말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그것보다 먼저 일어난 일에 대하여 표현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정과거는 가상적인 조건을 설정하는 시간이 과거로 표현되는 경우이다.

가정과거는 과거에 있었던 사건, 사실 등에 대하여 가정의 방법으로 가상적인 조건을 설정하는 표현방법이다. 그리하여 과거의 일에서 교훈을 찾아 오늘과 래일의 일을 더 잘 하도록 하는데 그 표현적효과가 있는것이다.

가정과거에는 가정과거완료와 가정과거지속이 있다.

- * 《언어학사전》(2)(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6.)에서는 《동사로 표현된 행동이 수행되는 과정의 성격을 나타내는 문법적범주》를 태범주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우리 문화어에서 태의 의미는 어휘적수단으로 표현된다.》고 하였다.

① 가정과거완료

가정과거완료는 가정을 나타내는 부분에서 과거에 그 행동이 이미 끝났음을 나타내는 표현방법이다.

- 전주에 기초굴착을 말끔히 끝냈더라면 이번주에는 기초타임을 능히 할수 있었을걸...

실례문에서 가정의 상태에서 기초굴착작업이 끝났음을 표현하였으므로 행동이 완료된것으로 된다. 따라서 이 문장에 표현된 가정은 《가정과거완료》라고 말할수 있다.

- 간밤에 전화가 제때에 걸속되었더라면 우리가 현장에 화물차를 보낼수 있었을것이 아닌가.

실례문에서 동사 《걸속되다》도 행동수행에 있어서 지속시간을 가지는것이 아니기때

문에 이 문장은 가정과거완료를 표시한것으로 된다.

- 어제밤에 경비원이 아니었다면 동쪽에서 물이 새는것을 미연에 막지 못했을 것이고 결국 저수지의 많은 물이 바다로 흘러갔을것이다.

실례문에서 어제밤에 경비원의 헌신적인 역할이 없었다는것을 가정하였으므로 가정과거완료가 표현되었다.

- 만일 누구든지 실험실에 들어서는 순간에 연구사들의 저조한 기색을 얼핏 보았다면 실험이 실패하였음을 제격 알아차렸을것이다.

실례문에서 동사 《보다》는 어휘적의미에 있어서 완료되는 행동을 나타내었다. 말하자면 《얼핏, 순간에, 눈깜짝할사이》 등의 단어들과 동사 《보다》가 결합되면 그런 때의 보는 순간은 무시할만 한 시간적간격이므로 행동이 완료되었음을 나타내게 된다. 즉 이 문장은 《순간에 ...얼핏 보았》다는것이므로 이것은 가정과거완료이다.

조선어문법에는 선평과거가 있다.

- 간밤에 전화가 제때에 걸속되었더라면 우리가 현장에 화물차를 보낼수 있었을것이 아닌가.

실례문에서 과거시간토가 겹치여 전화결속은 선평과거의 일로 표현되었다.

이리하여 조선어의 가정과거완료에는 가정선평과거완로의 변종이 있다고 말할수 있는 것이다.

② 가정과거지속

가정과거지속은 가정을 나타내는 부분에서 과거에 그 행동이 이미 끝난것이 아니라 일정한 시간에 걸쳐 지속되어왔음을 나타내는 표현방법이다.

- 만일 누구든지 실험실에 들어가서 실험과정을 잔잔히 보았다면 실험이 성공하였다는것을 확고히 알아차렸을것이다.

실례문에서 동사 《보다》에 의하여 표시되는 태적인 의미는 보다 넓은 폭에서 나타난다. 《잔잔히, 자세히, 구체적으로, 잔잔히, 진지하게, ...》 등과 동사 《보다》가 결합되면 보는 행동이 완료되지 못하였다는 의미가 나타나게 된다.

위의 실례문은 《잔잔히 ...보았다면》에 의하여 일정한 시간적간격이 표시된것이므로 가정과거지속으로 된다.

- 동무가 평양역에서 좀더 기다리였더라면 손님을 만났을텐데.

실례문에서 동사 《기다리다》는 일정한 시간을 요구하는것만큼 기다리는 행동이 끝나지 않고 지속된것으로 된다. 말하자면 이 동사의 행동수행성격은 일정한 지속시간을 요구하게 된다. 이 문장에서 가정의 유형은 가정과거지속으로 된다.

- 과학기술전당에서 좀더 공부하였더라면 출장지에서 돌아오는 아버지를 만났을것입니다.

실례문에서 동사 《공부하다》도 일정한 시간적지속과정을 요구하기때문에 그것은 완료되지 못한 행동으로 된다. 즉 실례문에 표시된 가정은 가정과거지속으로 된다.

이처럼 가정과거에는 가정과거완료와 가정선평과거완료 및 가정과거지속이 있다.

2.2.2. 현재에 대한 가정표현

가정현재는 말하는 순간과 일치하여 일어나고있는 사실이나 사건, 생활 등에 대하여 판단하거나 추측하거나 가상적인 조건을 설정하는 표현방법을 의미한다.

말하는 사람이나 글쓰는 사람이 현재에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 직접 체험하지 못하는 경우라든가 실제로 목격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것에 대하여 가정적으로 표현할수 있다.

그리하여 현재의 일에서 교훈을 찾아서 오늘과 래일의 일을 더 잘하도록 하는데 그 효과가 있는것이다.

- 하나를 만들면 보다 훌륭한것을 창조할수 있는 힘과 지혜가 생기고 한고비를 넘어서면 보다 높은 승리의 언덕으로 치달아오를수 있는 신심과 용기가 솟아나는것이 자력갱생의 위력이다.

실례문에서 《하나를 만들(다)면》은 시간토가 없이 현재를 나타내었는데 이 가정문의 한계는 《하나를 만들면 보다 훌륭한것을 창조할수 있는 힘과 지혜가 생기고》까지이다.

《한고비를 넘어서면》이라는 가정의 부분도 시간토가 없이 현재로 표현되었다.

여기서 가정문의 한계는 《한고비를 넘어서면 보다 높은 승리의 언덕으로 치달아 오를수 있는 신심과 용기가 솟아나는것》까지이다. 이때 말하는 사람은 아무런 주저도 없이 오히려 신심에 넘쳐 확신적으로 말하고있다는것을 알수 있다.

여기서 《하나를 만들다》와 《한고비를 넘어서다》라는 행동은 말하는 순간이 끝난 이후에도 의연히 존재하기때문에 그 가정은 현재와 함께 미래도 나타낸다.

현재에 대한 가정표현은 말하는 사람이나 글쓰는 사람이 직접 목격하거나 체험하고 있는 현재의 일이라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제나름의 가정을 설정할수 있게 한다.

- 만일 그가 하는 열정적인 연설을 들어보면 그 누구나 다 그를 웅변가라고 인정하게 될것이다.

실례문에서 《그》의 연설을 듣는것은 현재시간으로 표현되었다.

- 동무가 정수의 학습을 성의껏 도와준다면 그는 학년말시험을 잘 치를수 있을 거요.

이 문장에서 토 《L 다면》에 의하여 현재시간이 표시되었다.

현재에 대한 가정표현은 가정현재지속과 가정현재완료로 갈라진다.

① 가정현재지속

문법에서 현재지속이라는것은 말하는 시각에 어떤 일이 끝나지 않고 계속된다는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말하는 시각에 계속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 가정을 한다면 그것이 곧 현재지속에 대한 가정표현으로 되는것이다.

- 그러나 그런 영웅심이야 무엇이 나쁜가. 그런 영웅심이 결함이라면 우리 일에 무슨 위훈이 있고 기적이 있을수 있단 말인가...(단편소설 《폭풍우 지난 뒤에》중에서)

실례문에서 《그런 영웅심》은 해당한 인물이 가지고있는 성품인데 이것은 현재의 상태를 반영한것으로 하여 말하는 순간의 《결함》으로 표현되었다. 《영웅심이 결함》이라면 그 영웅심을 현재 누구인가가 결함으로 지니고있음을 표현한것으로 된다. 그러므로 이 실례문은 가정현재지속으로 된다.

- 교대하자면 아직 한시간을 더 기다려야 한다.

실례문에서 교대하는 일이 현재로 끝나는것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일이므로 미래도 반영한다. 맺음술어는 현재이지만 교대하는 시간은 문장의 내용으로 보아 말하는 시각보다 뒤에 있을 일로 된다. 즉 현재와 미래를 나타낸다. 이것은 곧 가정현재지속을 의미한다.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기쁨과 만족을 드린 단위들에 가게 되면 자력갱

생의 주로를 따라 즐기치게 내달리는 힘찬 모습들을 감명깊게 볼수 있다.

실례문에서 동사 《가게 되면》은 시간토가 없이 현재를 나타내었다. 이 동사의 의미는 현재지속이므로 가정현재지속의 갈래에 속한다고 할수 있다. 동사 《가다》는 일정한 행동수행의 시간을 요구한다고 볼수 있기때문이다.

- 각오와 투지가 부족하여 앞서나가는 단위들을 바라보기만 한다면 언제 가도 겨울잠에서 깨어날수 없다.

실례문에서 《바라보기만 한다면》은 지속시간을 요구하는 현상이므로 가정현재지속으로 된다.

② 가정현재완료

현재완료라는것은 말하는 시각에 일어나는 일이 이미 끝났음을 의미한다. 가정현재완료는 가정적인 조건을 나타내는 일이 말하는 순간에 이미 끝났음을 의미한다.

그 시선 한번 강토에 비끼면
황량하던 폐허에도 온갖 꽃이 만발하고
저인의 그 손길 창공을 가리키면
전설속의 천리마 네굽을 안고 나는
아, 이런 어머니를 내 지금껏
아이적목소리로 불러왔던가
이런 어머니의 크나큰 품이
나의 작은 요람까지 지켜주고있었던가

(서정시 《어머니》중에서)

《시선이 비끼다》, 《손길로 가리키다》와 같은 단어결합들에서 동사들의 의미는 행동이 이루어지는 지속시간을 무시할 정도이므로 이것은 현재완료의 의미로 된다.

- 당조직이 결정하면 당원들은 그 결정을 무조건 관철한다.

실례문에서 결정하는 문법적주체는 당조직이고 그 결정을 집행하는 문법적주체는 당원들이다. 《당조직이 결정하》는것을 가정하면 말하는 순간에 결정이 이미 선것이므로 《당조직이 결정하》는것이 현재시간에서 이미 끝난것으로 된다. 즉 말하는 시각에 당조직의 결정이 이미 진리로 존재하며 당조직이 결정하는 사업이 완료되는것으로 된다. 가정은 《당원들은 그 결정을 무조건 관철한다》에 의하여 확신성과 이어져있다. 즉 주어진 조건에서 필연적인 결과가 이루어진다는 확신성의 의미내용이 이 문장에서 흘러나오고있다.

- 당이 구상하고 결심하면 산도 떠옮기고 바다도 메운다.

여기서 가정적인 조건의 문법적주체는 주어져있지만 《산도 떠옮기고 바다도 메운다》의 문법적주체는 밝혀지지 않았다. 《당이 구상하고 결심하》는 일은 이미 끝난것으로 되어있다.

- (만일) 동무와 같은 무책임성과 해이성이 나타난다면 조국의 만년대계는 어떻게 되겠소?

실례문에서 무책임성과 해이성이 나타나게 되는것은 맺음토 《나다》에 의하여 현재시간을 표시하지만 말하는 시간에 이미 《무책임성이 조장되》였으므로 가정현재완료로 된다.

2.2.3. 미래에 대한 가정표현

문법적으로 미래는 말하는 시각보다 뒤에 있게 되는 일을 의미한다.

미래에 대한 가정표현은 말하는 순간이 지난 다음에 앞으로 현실화될수 있는 일이나 펼쳐지게 될 생활, 사건에 대하여 예측적으로 내다보게 된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 저마다 공명심에 사로잡혀 명예만을 바라고 뛰어다니겠다면 우리의 노동현장은 뒤죽박죽이 되고 질서는 형클어지고말것이다.

실례문에서는 가정의 표현구에 미래시간토가 붙어서 이루어진 《뛰어다니겠다면》은 미래적인것임을 말하고있다.

여기에서 등장인물은 만일 사람들이 공명심에 사로잡혀 명예만을 꾀하려고 한다는것을 가정하였다. 즉 《명예만을 바라고 뛰어다니겠다》는것을 말하는 시각에 미래적인것으로 가정하여 표현하였다.

- 저마다 공명심에 사로잡혀 명예만을 바라고 뛰어다니겠다고 하면 우리의 노동현장은 뒤죽박죽이 되고 질서는 형클어지고말것이다.

실례문에서 동사 《뛰어다니겠다고》는 미래시간토에 의하여 미래형으로 표현되고 가정을 나타내는 이음토 《면》은 《하다》에 결합되어 현재시간으로 표현되었다. 총체적으로는 미래시간과 가정이 결합되어 표현되었다고 할수 있다.

이처럼 미래에 대한 가정표현이라는것은 말한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나 생활 및 앞으로 있을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 추측하거나 가상적인 조건을 설정하는 표현방법을 의미한다.

- 《여보, 당신은 편지마다 내 걱정인데 오히려 당신에 대한 걱정으로 잠들수가 없소. 당신은 나에게 있어서 모든것ियो. 이제 머지 않아 전쟁이 승리로 끝나게 되면 그때에 우리 서로 만나서 가슴에 맺힌 그 모든것을 털어놓고 이야기 합시다.》(단편소설 《이 나라 녀인들》중에서)

실례문에서 《이제 머지 않아 전쟁이 승리로 끝나게 되면》은 말하는 시점에서는 앞으로 있을 일이므로 미래적인것으로 된다. 즉 미래의 일을 가정으로 표현하였다.

미래의 일에 대한 가정은 얼핏 보아도 당연한것으로 된다. 그것은 말하는 순간에 아직 그 일이 일어나지 않기때문이다. 예견과 예측으로 내다보게 되는 미래의 일도 일단 시작하면 그 순간에 완료되었는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흘러가겠는지 하는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미래에 대한 가정이 미래지속과 미래완료로 갈라질수 있는것이다.

① 가정미래지속

가정미래지속은 가정이 이음토를 포함한 《(만약) ...면 ...것이다.》라는 문형에 의하여 표시되고 미래가 가정의 표현구에 들어있는 미래시간토에 의하여 표현되며 미래지속의 의미는 동사의 행동이 미래에도 지속되는것으로 수행된다.

- 명수가 래일 정거장에서 나를 끝까지 기다리겠다면 난 폭우가 쏟아지더라도 기어이 가겠다.

실례문에서 미래시간토 《겠》이 미래를 표시하고 동사 《기다리다》는 한 순간에 끝나는 행위가 아니라 미래에 지속되는것으로 된다. 따라서 이것은 미래지속에 대한 가정표현으로 된다. 가정의 뒤부분에서 맺음술어에 미래시간토가 있는데 그것으로 하여 가정이 미래지속으로 결정되는것은 아니다.

- 철수네 작업반이 우리한테 지원을 하겠다면 우리는 이 생산현장을 떠나지 않겠습니다.(지원하겠다면)

실례문에서 《지원을 하다》, 《지원하다》는 지속시간을 요구하므로 미래에 지속되는 행동에 대한 가정으로 된다.

② 가정미래완료

가정미래완료는 가정이 이음토를 포함한 《(만약) ...면 ...ㄴ것이다.》에 의하여 표현되고 미래는 가정의 표현구에 들어있는 미래시간토에 의하여 표시되며 미래완료의 의미는 행동의 완료에 의하여 표시되는 가정표현방법이다.

- 그들이 래일 12시정각에 탑을 (다) 쌓고야말겠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꽃다발을 안기고 목마에 태워 탑의 앞마당을 걸어서 지나가겠습니다.

실례문에서 보조동사 《말다》에 의하여 쌓는 작업이 완료됨을 나타내고 미래시간토 (밑줄을 그은 토 《겠》)에 의하여 말한 다음에 일어날 일로 된다. 부사 《다》는 어휘적으로 탑을 쌓는 작업이 전부 끝나게 됨을 표시한다. 이 부사가 없어도 작업이 완료됨을 표시하지만 부사가 있으면 어휘적의미가 보충된다.

- 제1작업반이 오늘까지 기본굴진을 끝내겠다면 우리는 래일부터 박토처리와 작업장정리를 와닥닥 해제깍시다. (제1작업반이 래일까지 기본굴진을 계속 밀고나가겠다면 우리는 하루 더 준비하였다가 박토처리와 작업장정리를 와닥닥 해제깍시다.)

실례문에서 동사 《끝내다》는 행동이 완료됨을 나타내므로 《제1작업반이 오늘까지 기본굴진을 끝내겠다면》이 가정미래완료로 된다.(소괄호안의 문장은 동사 《밀고나가다》에 의하여 행동이 완료되지 않고 지속됨을 나타낸다.)

2.2.4. 혼합적인 가정표현

혼합적인 가정표현은 하나의 가정문에 과거와 미래가 겹쳐들어가거나 또는 과거와 현재가 복합적으로 동시에 나오는 경우 그리고 과거와 현재 및 미래에 대한 가정이 이중적으로 제시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표현방법이다.

- 석탄고지도 만만치 않게 높지만 이 부문 일꾼들이 지난 상반년에 조금만 일을 더 잘하였다면 그리고 하반기에 최대의 마력을 내겠다면 올해에 능히 점령할수 있소.

실례문에서 가정은 《...였다면, ...졌다면 ...ㄴ수 있소.》라는 문형에 의하여 겹쳐서 표현되었다. 가정의 앞부분에서는 이미 지나간 상반년에 이 부문 일꾼들이 일을 더 잘하지 못한것을 잘한것으로 가정하여 과거의 일로 표현하였고 앞에 오게 될 하반기에 최대의 마력을 내게 된다면 석탄고지를 능히 점령할수 있다는것을 미래의 일로 가정하였다.

- 《생명과학과 현대의학계앞에 어떤 문제를 내놓았는지, 전자공학의 발전행로에 어떤 본보기를 보여주었는지를 이야기하겠다면 즉시에 강연회를 기꺼이 조직해주겠습니다.》

실례문에 나오는 앞부분의 사건은 과거의것들이고 과거의 일을 이야기하겠다는 가정은 미래시간으로 표현되었다. 《어떤 본보기를 보여주었는지를 이야기하겠다면...》은 미래적인것이다. 《생명과학과 현대의학계앞에 어떤 문제를 내놓았는지, 전자공학의 발전행로에 어떤 본보기를 보여주었는지를 이야기하겠다면...》은 두가지의 과거적인 일을 묶어서 결국은 미래적인것으로 표현하였다.

이처럼 이 문장은 과거적인것과 미래적인것을 겹쳐서 이중적인 가정으로 표현한것으로 된다.

- 만약 그 총회가 자기앞에 제출되어있는 문제를 취급하기를 거절한다면 이것

은 이해될수 없는 일로 될것이고 앞으로 제출되는 문제들도 취급하기를 거절하게 된다면 이것은 결코 묵과할수 없는 일로 될것ियो.

실례문에서 가정을 표현하는 문법적인 형태는 모두 현재형으로 표시되어있다. 그러나 문장에서는 《…자기앞에 제출되어있》다는 표현에 의하여 그것이 과거의 일임을 알수 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취급하기를 거절하는것이 현재형의 이음토인 《나다면》으로 표시 되었으므로 그 가정은 현재의 일로 된다. 그뒤부분에서는 부사 《앞으로》에 의하여 《…앞으로 제출되는 문제들도 취급하기를 거절하게 된다면…》이 미래적인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거절한다면》과 《거절하게 된다면》을 형태적으로 본다면 그것은 현재시간으로 표시 되었다. 이리하여 이 문장에서 가정은 같은 현재시간의 일에 대한 복합적인 가정으로 표현되었다고 할수 있다.

같은 시간의 가정이 두가지 또는 세가지로 겹쳐서 표현되는것도 혼합적인 가정표현에 넣을수 있겠는가 아니면 이런 부류를 갈라내겠는가 하는것은 더 논의해보아야 할것이다.

3. 결 론

조선어에서 가정은 이음토 《면, 다면, 라면, 더라도, …》와 같은 토들과 부사 《만약, 만일, 혹시, 설사, …》를 가지고 묶은 《만약 (만일, 혹시, 설사, …) …면 …다.》와 같은 문형에 의하여 다양하고 풍부하게 표현된다.

가정표현에서 필수적인 수단은 《면》과 같은 이음토들이다. 부사와 같은 어휘적수단은 토보다 부차적인 지위에 있다.

가정표현의 의미기능은 여러가지로 나타난다.

가정표현은 사실에 대한 평가와 새로운 판단을 할수 있게 하며 사업과 생활에서 교훈을 찾을수 있게 하며 앞으로의 계획과 목표를 수립하고 그것을 가장 빨리 실현할수 있는 방도를 구할수 있게 한다.

가정표현의 유형은 시간의 갈래에 의하여 설정할수 있다. 그 유형은 과거, 현재, 미래에 따라 크게 세가지로 갈라지고 그밖에 혼합적인 유형이 있다.

과거에는 과거지속과 선평과거지속 및 과거완료가 있고 현재에는 현재지속과 현재완료 가 있으며 미래에는 미래지속과 미래완료가 있다.

가정표현에서는 앞으로 가정과 양태성, 가정과 범범주와의 관계, 가정의 어휘—문법적인 수단과 그 표현능력 등에 대하여 그 연구를 심화시켜야 할것이다.

실마리어 가정, 가정표현, 범범주